

# 백제 부흥운동 최후 거점 동문지·성벽구도 확인

(東門址)

## 문화재청 부안 우금산성 조사결과

동문지, 변산 정상과 이어지는 경사면에 위치 출입구는 개방문 형태 등성시설은 동문지 내부 북쪽서 발견 다량의 어골문 등 유물들도 출토



문화재청은 부안군청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부안 우금산성일대에서 동문지와 등성시설(계단), 동문지와 인접한 성벽구조 등을 확인했다.

백제 패망 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 성으로 알려진 '부안 우금산성(전북도 기념물 제20호)'에서 동문지(東門址)와 성벽구도 등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부안군청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부안 우금산성일대에서 동문지와 등성시설(계단), 동문지와 인접한 성벽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문지는 변산 정상과 이어지는 경사면에 있으며, 출입구는 개방문(개거식) 형태다. 또 북쪽 측벽석의 현재 상태로 파악했을 때 두 차레 이상 고쳐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문지의 규모는 길이 3.5m·너비 3.9m이며, 2차 문지는 길이 7.1m·너비 3.3m로 파악됐다. 1차 문지의 북쪽 측벽과 성 외벽의 모서리, 2차 문지의 양쪽 측벽과 성 내·외벽 모서리는 직각을 이루고 있다.

2차 문지 통로 입구에선 문화석(문을 고정시키는 돌) 1매가, 윗면에는 지름 24cm, 깊이 8cm 크기의 원형 홈이 있다.

특이점은 2차 문지의 양쪽 측벽에 너비 32~50cm·깊이 47~70cm의 나무기둥(목주) 홈이 여섯 군데 시설돼 있다. 목주홈 간의 거리는 1.8m로 일정하며, 양쪽 측벽석에 3개씩 대칭으로 배치됐다.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더 이른 시기에 발견된 문지에서는 보통 땅을 파서 기둥홈을 마련하는데, 우금산성은 목주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등성시설은 동문지의 내부 북쪽에서 발견

됐으며, 길이는 4.2m·너비 6.4m로 길게 깎은 돌을 이용하여 계단 형태로 쌓았다.

이와 함께 유물로는 다량의 어골문(생선뼈무늬), 격자문(문살무늬)이 새겨진 기와, 청자와 분청사기 조각 등이 출토됐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우금산성의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 등성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복원·정비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라운지 행사시설 설치·운영업체 모집

내달 2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도 가능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라운지 행사시설 임대 및 설치, 운영업체를 모집한다.

신청된 업체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5월 3~12일)의 랜드마크인 전주 돔을 중심으로 영화·공연·기업홍보·티켓예매·휴게 공간 등 각종 관객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주라운지의 공간 조성에 관련된 구조물과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한다.

공모대상은 해당 업종으로 사업체가 등록된 곳으로 주사업자가 TFS텐트·조립식관람석·이동식화장실 등 구조물과 시설물을 직접 보유하고,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단일규모로 1억2000

만 원 이상의 수행 실적은 2건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한한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반드시 전북에 소재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와 함께 2월 2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사무처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한지메이드 색지공예교육 결과물들 한눈에

전통문화전당, 내달 28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특별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2월 28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한지기획전시실에서 '한지등'과 '전통소반' 등 색지공예교육 결과물들에 대한 특별 전시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색지장 김혜미 선생이 지난 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지메이드 색지공예교육'에 따른 결과물들로 구성됐다.

13명의 교육생들은 지난 3월~6월까지 '전통소반', 8월~11월까지 '한지등' 교육을 각각 수료하고 작품 활동을 펼쳤다.

'한지 색지공예의 멋을 품다'를 주제로 전통육각과 사각 형태의 한지등을 비롯해 전통소반, 한지 향이라, 사주상자 등 총 21점을 선보인다.

작품 관람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최선례씨 작

이종렬씨 작



## 하기정 시인, 불꽃문학상 수상자 선정

하기정(49·본명 하미숙) 시인이 제10회 불꽃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밤의 귀 낮은 입술'(2017·모악). 등단 7년 만에 펴낸 시인의 첫 시집으로 활발한 화법과 다채로운 상상력이 담긴 62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정양·김용택·최동현·안도현·복효근 시인과 임명진 평론가, 이병천·김병용 소설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선정 배경에 대해 "불꽃같은 문학은 불꽃같은 문학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서 "낯설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하기정 시인의 시가 독자의 가슴에 일렁이는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기정 시인은 "불꽃문학상이란 이름처럼 참으로 환하고 따뜻한 상을 받게 됐다. 이는 동료 문학인들이 주는 상이어서 더 감사하고



송구하다"면서 "이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지켜서 누군가의 손에 넘

겨주어야 하는 일기에 불꽃 씨가 버겁기도 하지만 기본 좋게 뜨겁고 무겁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하 시인은 일실 출생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구름의 화법'이 당선됐으며, 5·18문학상과 작가의는 작품상을 수상했다.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가 2006년 제정한 '불꽃문학상'은 어둠과 흑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불꽃처럼 뜨거운 정신으로 문학의 길을 밝혀가길 바라는 동료 문인들의 격려가 담긴 상으로, 상금 3백만 원은 회원들이 각출해 마련한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6시 30분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전화)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